

위기에 대하여 출14:10-14

살다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난다. 즉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된 것이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어려움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무너지게 된다. 지금 모세는 사방이 막힌 어려운 환경과 강력한 적의 공격,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 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고, 불신앙으로 떨어뜨린다. 두려움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두려움은 실패의 원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처럼 물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사야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의지이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싸워 줄 줄 믿었다. 모세의 두려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억하라'이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고 했다.

이는 절박한 상황과 문제를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두려운 것이다. 이 때 요구되는 것이 말기는 믿음이다.

잠언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셋째는 '구원을 보라' 고 했다.

이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고,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사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들을 사방이 막힌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2), 바로가 다시 그들을 공격하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4).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4하).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16)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